

나카무라·아와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역참 마을이었습니다. 전성기에는 두 마을을 통틀어 40 곳 이상의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. 거상이었던 다케우치 가문 주택과 난바주조 양조장, 이 두 개의 에도시대(1603-1867년) 건축물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. 1876년 '이쿠노 광산료 마차길'(현재의 '은의 마차길')이 건설된 후에도 나카무라·아와가마치는 마차길 도로변에 위치한 주요한 역참 마을로 번창했습니다. 1894년 이쿠노 광산에서 나온 은의 수송 및 효고현 내륙부와 히메지를 연결하기 위해 반탄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. 승객은 쓰루이역에서 마차를 타고 '아와가의 역참(우마야)'에서 마차를 갈아탔습니다.